

## 장혁주의 생애와 문학

白川 豊 (시라카와 유타카)  
(日本 九州産業大)

### I. 張赫宙의 前半生 (8·15 以前)

장혁주(본명: 은중=恩重)는 을사보호조약이 조인된 해인 1905년 경북 대구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장두화(張斗化, 仁同張氏)는 지주였다. 그의 생모는 기독교신자였다 한다. 혁주는 모친을 따라 경주에서 살게 되었고, 1913년에 경주에 있는 계림(鷄林)보통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역사, 고고학에 조예가 깊은 오오사카 킨타로(大坂金太郎·아호六村)교장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그를 따라 답사도 다녔고, 일본어도 익혔다 한다. 1919년에 보통학교를 졸업한 혁주는 대구의 부친 댁에서 살게 되었고, 다음해인 20년, 15세 나이에 결혼했다. 그 이후 2남 2녀를 두었다.

21년에는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성적이 우수했고 또 그 동안 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4학년 때 학생파업에 가담하여 무기정학을 당한 다음 학교생활에 싫증이 나, 문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한다. 26년 봄, 대구고보를 겨우 졸업한 혁주는 취직도 하지 않고 무정부주의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진우연맹(眞友聯盟)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이 연맹이 해산하게 되자, 동년 가을부터 29년 봄까지 경북 청송군과 예천군에서 학교교원 노릇을 하면서 습작을 하곤 했다. 그 동안에 교원자격을 얻은 혁주는 29년 봄, 대구의 희도(喜道)소학교 훈도(訓導)가 되었다. 이 무렵부터 일본어 창작으로 본격적으로 일본문단진출을 노리게 된 혁주는 32년 봄, 일어단편 「餓鬼道」로 《改

造》잡지의 懸賞소설에 2등 입선을 함으로써 일약 각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 때 수상식 차 동경에 간 혁주는 야스타카 토쿠조(保高德藏) 등 많은 일본문인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혁주는 거의 해마다 동경을 드나들었다. 그리고 일어작품을 잇따라 발표하는 한편, 한국어작품도 써 보았으나, 한국 내에서는 기대할 만한 평가를 못 받았다. 게다가 백신애(白信愛) 등과의 연애사건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그는, 36년 여름에 아주 동경으로 생활의 거점을 옮긴 것이다. 동아일보지에 연재 중이던 「여명기」(黎明期)도 때마침 일어난 소위 일장기(日章旗)말살사건 때문에 신문이 정간당하여 중단되고 말았다. 이 때 원래 애정을 못 가졌던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었으나 뜻대로는 되지 않아, 그 후 오랫동안 고뇌하게 된다. 동경에 이주한 당시에는 고독감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창작활동도 부진한 상태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 무렵에 사귀게 된 일본여인이 후일의 아내가 된 노구치 케이코(野口桂子)여사였다. 그 후 1947년까지 5남이 태어났다. 혁주는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아 왕성한 창작활동을 재개했다. 이 무렵에 김사량(金史良)이 그를 찾아온 것이다. 한편 38년에는 무라야마 토모요시(村山知義) 연출로 장혁주의 희곡 「춘향전」이 한일 양국에서 상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 이후 시대상황이 차차 혁주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39년에는 장편 「加藤清正」을 썼고, 소위 펜部隊 일원으로 만주 등지로 시찰여행도 다니게 된다. 또 「朝群の知識人に訴ふ」(조선지식인에게 호소한다)라는 글을 발표하여 물의를 빚어 내기도 했다. 40년에는 장편 「여인초상」(女人肖像)을 매일신보지에 연재했는데, 이것이 한국어로 쓴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41년에는 자서전적 색채가 짙은 장편 3부작을 내는 등, 혁주의 일어창작활동은 절정에 달했다. 이 해에는 《문장》지 등이 폐간당하는 가운데, 혁주의 한국어 작품 출판계획도 잇따라 취소되었다. 42년이 되면서 혁주는 결심이나 한 듯이 일본당국의 국책수행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만주의 개척촌 시찰, 광산시찰 등을 자주 다니게 되었고, 43년에는 육군특별지원병훈련소에 3일간 체험입대하여 한국 내에서의 징병제실시에 협력했다. 이어 44년, 日本文學報國會 내에 설치된 皇道朝群研究會위원으로서 탄광노동자 위문에 나섰

고, 한편으로 大陸開拓文學委員會위원도 겸했다. 또 국책영합적 작품집인 『岩本志願兵』을 일본명인 노구치 미노루(野口稔) 이름으로 출판했다. 1945년, 그는 간도, 북지(北支=북부중국) 등지를 취재여행 중에 동경의 자택이 5월에 있는 공습으로 타 버려, 그의 식구들은 처가집이 있는 나가노현(長野縣)에 피난했다. 동경에 겨우 돌아온 혁주는 일본에 영주할 결심을 하고 피난지에서 전후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장혁주의 1945년까지의 약력이다.

## II. 8·15 以前の日本語作品

장혁주는 본격적으로 문단에 등단한 1930년 이후, 1945년 8월까지 장편소설 15편과 중·단편을 60여편, 그리고 기타 콘트나 희곡 등을 합하면 무려 90편을 넘는 작품을 발표했고, 단행본은 실로 30권에 달하는 방대한 글을 썼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친일’작가의 필두에 손꼽히는 장혁주이지만 실은 다양한 경향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소설을 중심으로 그 내용경향을 분류해 보면 일단 다음 6가지로 묶을 수가 있다. ① 동반자문학적 작품, ② 허구성이 짙은 작품, ③ 체험적, 전문(傳聞)적 작품, ④ 자서전적 요소가 많은 작품, ⑤ 무인(武人), 전역(戰役)관계 작품, ⑥ 시국(時局), 국책(國策)영합적 작품. 이하에 각기 그 대표작품을 몇 편 들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 ① 동반자문학적 작품

장혁주가 일본어로 작품을 쓰게 된 당초의 목적은 일본인 독자들에게 식민지하의 가혹한 상황을 알린다는 뜻이었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계열의 작품군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출세작 「餓鬼道」(1932. 4.)인데, 이 작품으로 그는 개조(改造)사 현상소설 2등에 입선함으로써 일본문단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작품은 경북 벽촌의 저수지공사에 동원된 부근 농민들이, 현장감독이나 십장의 횡포와 혹사를 감당하지 못해, 드디어 쫓겨한다는 내용인 만큼 발표당시의 원문에는 복자(覆字)가 많았다. 다음, 「奮い起つ者」(분기하는 자, 1933. 9.) 역시 경북의 한 한촌이 무대인데, 이곳 소학교 교

사인 김철은 자기보신을 위해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교장의 학생폭행을 계기로 정정당당하게 비판하여 연행당한다는 이야기다. 이 작품이 실린 《文藝首都》지는 발매 전날에 발금처분을 당했지만 일부가 유통되어 작품이 겨우 남았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문학작가들 뽑힐 과격한 내용인데, 주인공의 성격설정이나 언동서술은 획일적인 면도 없고, 한 인간의 심리와 고뇌가 잘 그려진 작품이다. 이러한 계열의 작품으로는 이외에 「迫田農場」(1932. 3), 「追はれる人々」(쫓기는 사람들, 1932. 6.) 등이 있다. 장혁주가 이러한 계열의 작품으로 주목을 받은 데에는 그 당시 일본문단의 조류도 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즉 일본프로문학이 벽에 부딪히고 있던 당시에 색다른 식민지작가의 작품이 싱싱하게 보였다는 점이다. 혁주는 김용제(金龍濟)를 통해 일본프로작가동맹(NALP)가입의 권유를 받았으나, 고민 끝에 거절한 바 있다. 혁주는 일본문단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들어가는 프로계열에 몸을 두는 일에는 불안이 너무 컸던 것이다. 그래서 1933년부터는 한국적인 풍속이나 정서를 다룬 작품으로 창작상의 방향전환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②, ③계열에 속하는 작품이다.

## ② 허구성이 짙은 작품

본격적인 픽션이라 할 수 있는 이 계열 작품들 중에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3편을 들어본다. 먼저, 「醉へなかつた話」(취하지 못했던 이야기, 1937. 1.)에서 주인공 김성근(金成根)은 도청직원인데, 어느 날 군청에 내려가 회계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낮은 월급으로 일하던 그는 요정에서 접대를 받고 더군다나 뇌물까지 받고서는 군청의 부정·부패를 적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말단관리의 양심과 물욕과의 갈등양상이 잘 그려져 있다. 또 그 당시의 지방관청의 부패상의 일단도 엿볼 수 있는 가작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霧圍氣」(1938. 6.)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난봉꾼들이 얹혀서 기생들이나 일본 게이샤(藝者)들과 노는 가운데, 한일혼혈아인 게이샤 스즈야코(鈴奴)를 둘러싼 치정(癡情) 관계가 그려져 있다. 이 소설에는 일본인 게이샤의 한국인 손님에 대한 경멸감 등을 잘 그리고 있다. 한편, 「慾心疑心」(1940. 7.)

는 조금 모자란 토지 거간꾼인 야스다(安田)가 청송의 水鐵광산의 이권으로 한 밑천을 잡으려다 실패하고 말 때까지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의 악착같은 욕심을 유머를 섞어 잘 그려내고 있다. 이들 2편 작품은 모두 일본 국내의 대표적인 문예지인 《文藝》지에 게재된 작품인 만큼, 순수한 일본문학다운 필치로 쓰여져 있어, 장혁주가 이제 일본문단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해 주는 작품이다.

### ③ 체험적, 전문(傳聞)적 작품

이 계열 작품의 대부분은 3인칭 주인공으로 작가의 전문에 속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 그 대표격이 「權といふ男」(권이라는 성을 가진 사나이, 1933. 12.)이다. 이 작품은 경북 벽촌의 보통학교 교원이 된 '나'(金)가 휘말리게 된 교원사이의 파벌싸움의 상황을 흥미롭게 그렸다. 한편, 「ガルボウ」(갈보 1934. 3.) 역시 경북의 어느 벽촌의 갈보를 둘러싼 면장과 난봉꾼과의 싸움을 신랄하게 그렸다. 이들 작품의 무대는 대부분이 장혁주가 잘 아는 경북 지방인데, 동반자문학적 작품에서 작품을 전환하려고 했을 때, 가장 손쉽게 쓸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작품이었다. 그리고 색정과 욕심을 중심으로 한국풍속을 그리면 일본독자들의 관심을 쉽게 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계열 작품에는 그 외에도 「葬式の夜の出来事」(장례식 밤의 일 1934. 8.), 「愚劣漢」(1935. 4.) 등이 있다.

### ④ 자서전적 요소가 많은 작품

장혁주의 일본어작품 중에는 이 계열에 속하는 작품이 10편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장편이 6편이나 되는 것이 우선 주목된다. 작품내용에는 물론 허구부분도 상당히 섞여 있기는 하나, 혁주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집요하게 그렸다는 점이 주목되는 것이다. 그 중 「孤獨なる塊魂」(고독한 혼, 1942)는 그의 유년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를 다루었는데, 후반부분은 허구화되어 있다. 전반부분에서는 주인공이 부친의 첩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쓴 것이다. 필자가 작가 본인에게 문의한 바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집요

한 필치는 심상치 않다. 그의 청년기를 그린 작품으로 「人間の絆」(인간의 굴레) 3부작이 있다. 즉, 「人間の絆」, 「美しき抑制」(아름다운 억제), 「緑の北國」(푸른 북국, 이상 모두 1941)이 그것들이다. 이들 작품 역시 후반부에 갈수록 허구화된 이야기로 되어 있으나, 제1권(人間の絆)에 나오는 주인공격인 사회주의자이자 보헤미안인 박호길(朴浩吉)이나, 사학교원이자 소설가인 그 친구 서정영(徐晶影)의 각기 모친에 대한 애증의식의 묘사는 상당히 박진력이었다. 그래서 이 3부작은 장혁주 자신의 청년시절의 모친에 대한 감정이 바탕에 깔려 있어, 그것을 일종 ‘교양소설’로 꾸미려고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혹은 작품명이 똑 같은 S·Maugham의 대표작 「Of Human Bondage」(1912-15)를 의식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남부진(南富鎭)씨는 자서전적 작품 속에서 장혁주가 구태의연한 당시의 한국시골의 봉건적 집과 사회에 대한 생리적 혐오감을 되풀이 그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 반대로 근대적인 것에 대한 동경(憧憬)과 일본에로의 접근이라는 시각에서 장혁주문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이 자서전적 소설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近代文學の<朝鮮>體驗』, 2001) 앞으로 그의 문학을 ‘친일’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자체의 문학적 의의나 달성도 위주로 검토할 때, 이 계열 작품군은 마땅히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⑤ 무인(武人)·전역(戰役)관계 작품

이 계열 작품에는 신라의 화랑 원술을 그린 「花郎」(1942. 10.-43. 2.)과 임진왜란에 취재한 4장편이 있다. 이들 중 우수작인 「和戰何れも辭せず」(화전 어느 쪽도 불사하다, 1942)를 보면, 이 장편은 왜란직전인 2년간의 상황을 풍신수길의 부하인 코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에 초점을 맞춰서, 긴박한 외교협상과 세계정세에 몰이해한 폭군 풍신수길 밑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맞춰, 다면적인 시점의 제시와 잘 꾸며진 구성 등으로 인상 깊게 읽히는 작품이다. 장혁주는 코니시의 라이벌인 카토오 키요마사(加藤清正)를 중심으로 한 「七年の嵐第一部:悲壯の戰野」(7년의 폭풍--비장한 전야, 1941)도 썼기 때문에 일본측 무인만을 그렸다는 오해도 받기 쉬우나,

만드시 '친일'적 관점에서만 쓰인 것은 아님을 조금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당초 계획으로는 이순신 장군을 다룬 제3부와 중국측 특사인 심유경(沈惟敬)을 중심으로 한 채 4부를 합쳐, 「七年の嵐」 4부작으로 이 전란을 되도록 객관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그려낼 생각으로 있었다고 하는 만큼, 후반부가 미완결로 끝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 ⑥ 시국(時局), 국책(國策)영합적 작품

이 계열 작품에는 지원병에 얽힌 이야기인 「岩本志願兵」(1943), 「新しい出發」(새 출발, 1943)과 만주지방의 개척에 관한 몇 편이 있다. 먼저 「岩本志願兵」에서는 재일한국인인 주인공 이와모토(岩本)가 원래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의문시하고 있었는데, 동경근교에 있는 고려신사 참배를 계기로 깨달은 바 있어, 우수한 지원병이 될 때까지를 그리고 있다. 그 당시 한국인은 일본 군인이 될 길이 없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차별을 가져오고 있었다는 기묘한 사실관계가 그 배경에 있다. 그것이 1943년의 징병제 시행으로 인하여 모두 해소되었다는 취지인데, 주인공이 의문과 고뇌를 왜 뿌리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고, 결과만을 긍정적으로 적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침략정책에 영합한 작품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자유롭게 말을 못한 시대를 살면서 더군다나 동경문단에서 좀 알려진 한국인작가의 입장이란 참으로 난처한 것이었으리라는 상상력 없이, 후일 사람들이 비판만 일삼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다음에, 만주개척을 다룬 작품 중에서 걸작인 「開墾」(1943)을 소개하면, 이 작품은 1931년 7월에 일어난 만보산(万宝山)사건을 다룬 장편이다. 일본측의 보호하에, 중국 동북지방에서 일방적으로 개간을 강행하는 한국인 이주민들과 현지주민들 사이에 터진 충돌이 그려져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묘사가 일본측에만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지주나 당국자, 혹은 현지 농민들의 입장도 이해되도록 객관적으로 그렸다는 점이다. 이해(利害)집단 상호의 충돌을 그리면서, 당시의 국제정세나 정치역학에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법은 「和戰何れも辭せず」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장혁주

가 본격적 일본어작가로서 어느 정도 성숙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岩本志願兵」과 같은 작품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은 물론 잊어버릴 수가 없다. 순수문학적인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었던 이 시기의 장혁주 문학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에는, 일방적으로 그의 정치적 자세만을 가지고 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전후 시기를 포함한 전체 작품을 바라보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장혁주가 1930~45년 사이에 어떠한 경향의 작품을 발표했는지를 재정리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내용경향별로 6가지로 분류해 본 결과, 대충 ①→⑥순으로 그 경향이 추이해 간 듯하기도 하다. 그러나 장혁주가 시기별로 경향이 다른 작품을 썼다고까지 잘라 말할 수는 없다. 혁주는 1934년 4월에 발표한 「我が抱負」(내 포부, 1934. 4.)라는 글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그는 두 개의 다른 문학적 세계 속에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선천적인 예술욕인데, 인간생활의 복잡한 사회적 생활과 개인의 생존욕에 따른 각종 본능을 그리는 일이고, 또 하나는 후천적인 예술세계인데, 그가 소속하는 민족의 다양한 상황을 그리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당분간 병존할 것이라면서도 실은 프롤레타리아문학적인 작품을 쓸 자유는 없고, 또한 원래 후자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고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에 주력하고 싶다고 실토하고 있다. 그리고 풍속사에서 생활심리까지 그리는 데에는 발자크에도 못지 않은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그는 인간개인의 사회생활 속에 잠재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목표라면서, 발자크뿐만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 등도 읽었다고 한다. 이로써 장혁주가 1934년에 이미 동반자문학은 자기 사명인 만큼, 써야겠지만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이 노선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고 암시한 것으로 풀이될 것이다. 동시에 그가 어떤 작품을 쓰고 싶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방향전환을 한 다음에 그는 1937년 6월에 쓴 글 「「愛怨の園」の批評」(「愛怨의 동산」의 비평) 속에서 이번에는 “나는 내 문학의 발전을 또 다른 방향에도 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10년 후라야 밝힐 수 있다고



썼다. 이것이 바로 자서전적 요소가 많은 작품인 것이다.

1935, 6년경의 장혁주는 창작활동에서도 실생활상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다. 창작상으로는 「あらそひ」(싸움, 1934), 「愚劣漢」(1935), 「月姫と僕」(月姫와 나, 1936) 등이 혹평이었고, 창작자체에 대한 미혹과 슬럼프의식, 인생관이나 세계관의 흔들림,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심은 인도주의적인 감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운동'에서 뒤떨어졌다는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 사생활상에서는 백신애 등과의 연애문제와 동경이주 등이 얽혀 있기도 했다. 그러한 가운데 작품의 사회성과 행동성이 후퇴했고, 그것을 보완한 것이 자기중심, 내면중심이라는 폐쇄적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의 변화는 그의 문학상의 주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장혁주문학의 큰 주제는 무엇일까. 이것을 살피기 위해 그의 창작집의 제목을 열거해 보면 출판순으로 다음과 같다. 「權といふ男」, 「仁王洞時代」, 「深淵の人」(심에 있는 사람), 「春香傳」, 「路地」, 「愛憎の記録」, 「白日の路」(백일하의 길), 「岩本志願兵」. 이것을 보면 대부분은 혁주 개인의 감정세계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장혁주문학은 바로 「愛憎の記録」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정의(正義)를 둘러싼 의분(義憤)이기도 하고, 권세욕에 얽힌 감정이기도 하다. 또 자기 모친에 대한 혹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애증의식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원병의 감격과 발분(發奮)이기도 한 것이다. 장혁주는 개인의 감정이나 심리에서 사물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작가이다.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개별작품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 출발점에는 공통성이 있다. 혁주에게 사회정의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내선일체'의 주장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서, 논리나 분석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것은 항상 어떤 대상에 대한 애증이 얽힌 감정의 발로(發露)이어서, 거의 생리적인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작품이 변화했다고 보여지는 것은 실은, 민족이나 계급에 대한 애증의식 →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증의식 → 일본에 대한 애증의식으로 그 대상만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장혁주의 일본어작품과 한국어작품과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혁주는 한국어창작에 앞서 먼저 일어창작으로 출발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가 등단한 1930년대 초의 혁주의 일어실력에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독자들에게 호소하고 싶다는 집념과 일본문단에 진출하고 싶다는 야망이 결합되어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경향의 작품을 대량생산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어창작은 그 발표시기도 1933-41년에 한정되어 있고, 작품량도 장편 몇 편과 중·단편 기타 10여 편에 머물렀다. 게다가 그 작품경향은 허구성이 짙은 작품과 체험적, 전문적 작품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동반자문학적 경향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통속성이 강하고 남녀관계를 다룬 작품이 많다. 이것은 신문연재소설이 많았다는 발표매체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혁주는 스스로 등진 한국문단과 고국의 독자들에게는 그의 맨 얼굴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느낌이 있다. 한국어작품 중에는 자서전적 소설이 없는 것이 이것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혁주는 일본에서의 성공을 가지고 한국 내에서는 마치 일본서 온 손님이나 된 것처럼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어작품을 쓴 것이 아닌가 싶다. 동경에서 일본어만을 쓰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1930년대 후반에 한국어 장편소설을 썼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이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1941년에 이르러도 5권짜리 『장혁 주장편결작선집』(신세기사: 예정)을 꾸밀 계획으로 집필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장편소설의 문학적 수준은 「여인초상」(女人肖像)(1940) 등을 제외하면 그의 일어장편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일어창작은 그의 밥벌이수단인 만큼 적당히 쓸 수는 없다는 어떤 긴장감이 있었을 것이고, 한국어창작의 경우에는 그러한 여건이 없는 것이 이 차이를 가져 왔다고 보여진다.

이상에서 장혁주가 다양한 제재와 수법으로 수많은 수준급 작품을 썼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소개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혁주의 큰 주제는 자신의 주관적인 애증의식에서 출발한 넓은 의미에서의 자기체험의 테두리 안의 세계였지만 그 한편으로 한국작가가 한국어로는 쓰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어창작을 통해 제기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역설적이지만 장혁주가 일본작가로 행세하면서 일본인 독자들에게 호소했기에 가능했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한국문단측에서는 한국어를 버렸다는 점만으로 충분히 그에게 욕설을 퍼부울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혁주는 자기가 한국작가들이 못했던 창작활동을 해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다. 문제는 이 자부심이 극히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고, 또 자기 나름으로는 건투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기실 당시의 큰 시국(時局)적 흐름에 놓여 있었다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비판을 당했을 때 자기합리화에 너무 급급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해석도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즉, 확실히 장혁주의 시국이나 일본의 국책에 영합하는 언동은 좋지 못하지만, 이것은 동시대의 많은 식민지 지식인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부하(負荷)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혁주처럼 일본 내에서 일단 잘 알려진 한국작가가 일본의 국책이나 당국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반기는커녕 그냥 침묵으로 넘어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는 국책에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전쟁말기에 위장(僞裝)협력의 혐의로 문초를 받은 일도 있다 한다. 이러한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는 일 없이 대일협력이라는 표면적 사실만으로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일면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게다가 작가란 무엇보다도 그 작품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 때, 실제작품을 우선 허심탄회하게 읽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Ⅲ. 8·15以後의 張赫宙와 그 作品

앞에서 쓴 것처럼 장혁주는 소개(疏開)지인 나가노(長野)현에서 1947년에 다시 상경했는데, 도심지를 피하여, 고대부터 한국계 도래민들이 개척했다는 고려군(高麗郡)이 있는 사이타마(埼玉)현·히다카(日高)시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수도권이기는 하나, 고려신사도 가까운 한적한 이 동네에서 혁주는 최만

년까지 살았다.

장혁주의 8·15이후의 창작활동을 다음 3시기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제1기 : 1945-53년, 제2기: 1954년-75년, 제3기: 1976년이후.

제1기는 필명을 예전대로 '張赫宙'로 집필한 시기인데, 이 시기의 작품으로는 장편 『孤兒たち』(고아들, 1946), 단편집 『人の善さと悪さと』(사람의 선량함과 악랄함, 1947), 단편집 『愚劣漢』(1948), 장편 『若い女』(젊은 여자, 1948), 장편 『李王家秘史-秘苑の花一』(비원의 꽃, 1950), 장편 『嗚呼朝鮮』(1952) 등이 있다. 이들 중, 『愚劣漢』은 1935년까지 발표된 「權といふ男」(1933), 「ガルボウ」(1934) 등 단편 6편을 그대로 재수록한 것이다. 이들 작품은 거의 모두 한국의 풍속이나 시골의 인간관계를 다룬 작품이고, 그가 1932년에 본격적으로 일본문단에 등단했을 때 높은 평가를 받은 식민지상황 고발의 작품은 아니다. 일본 패망 후에 전혀 달라진 환경 속에서 그가 이러한 작품을 다시 냈다는 것은, 다시 부활한 좌익계통의 강세에는 혁주가 이제 가담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추측케 하는 것이다.

한편, '친일파'로 몰려 좌우 양쪽 재일한국인들에게서 지탄을 받고 있었던 혁주는 항상 협박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았다. 그 간의 사정은 단편 「脅迫」(1953)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또, 식민지기의 행동에 대해 변명할 필요성을 느낀 그는 중편(?) 「民族」(1946, 연재 3회로 중단됨)으로 친일행위로 몰려 간 경위에 대해 애써 변명했다. 이 시기에는 사전에 알려진 필명으로는 집필이 제대로 안되어, 생계도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재일 한국인끼리 대립양상이 선명해진 이 무렵에, 혁주는 결심이나 한 듯이 「元朝連系同胞に訴える」(前朝連系동포들에게 호소한다, 1952) 등을 쓰면서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친일파'인사인 혁주의 말을 들어 주는 분위기는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고국에 남겨 둔 전처소생의 아들들의 행방도 궁금해진 혁주는 51년 7월, 毎日新聞社후원으로 한국으로 날아갔다. 이 때 취재를 바탕으로 쓴 것이 「嗚呼朝鮮」인 것이다. 제목이 상징하듯이 고국의 비극에 그야말로 통곡하는 수밖에 없는 혁주였다. 동포들에게서는

비난을 당하면서도 이 소설은 이웃 나라의 정보가 부족했던 당시의 일본인 독자들에게는 전시보도에서는 알 수 없는 전쟁의 이면(裏面)을 헤아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은 남북 사이에서 헤매는 주인공을 통해, 한일 사이에서 고뇌해 온 장혁주 자신을 위한 일종의 변명의 글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혁주는 휴전협정이 진행되고 있던 52년10월, 일본에 아주 귀화신청을 하고 노구치 미노루(野口稔)가 된 것이다. 그리고 1954년 자서전적 장편 『遍歴の調書』를냄으로써 그 때까지 자기 인생을 총합한 그는, 필명도 완전히 노구치 카쿠츄우(野口赫宙)로 바꾸어 평범한 일본작가의 길로 나간 것이다.

제2기의 작품으로는 그 당시 '불치의 병'이라 일컬어진 난치병을 다룬 장편 「黒い地帯」(검은 지대:1958: 폐결핵), 「ガン病棟」(암병동:1959: 암), 「黒い眞晝」(검은 대낮:1959: 한센병) 등을 잇따라 발표하여 사회의 암흑상에 눈을 돌렸으나, 한국인작가가 아니면 못 쓸 만한 소재는 아니어서 「嗚呼朝鮮」만큼 주목을 모을 수는 없었다. 혁주는 「ガン病棟」을 추리소설 비슷한 수법으로 쓴 것처럼, 소위 미스터리소설도 시도해 보고 취재범위도 넓힐 노력을 했지만, 수많은 일본작가들 사이에서 특색을 드러내기란 지극히 힘든 일이어서, 그 이후 장혁주의 문학적 영향력은 다시 부활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이 시기의 작품에 대해 필자는 이 작가자신에게 문의해 본 일이 있는데, 미스터리 소설 몇 권을 냈고, 미노루 노구치(ミノル・野口)라는 필명으로 サンデー毎日 지에다 단편을 썼다고 한다. 또, 野口實 이름으로 '소녀소설', '소년소설'과 장편 3편을 포함해서 많이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 毎日, 朝日, 讀賣 등 일간지에도 수필을 많이 기고(寄稿)했다고도 하지만, 아직 조사를 못한 상태에 있다.

제3기는 자서전적 장편소설 『嵐の詩』(폭풍의 노래, 1975) 이후를 가리킨다. 장혁주는 원래 자서전적 작품을 수많이 남긴 작가이다. 물론 허구화된 이들 작품은 내용적으로 서로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집요하게 쓴다는 것은 이 행위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반생에 대한 카타르시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 그는 자서전적 작품을 씀으로써 그 때까지 인생에 일단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 가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8·15 이후 30년이 지나, 일본어작가로서의 가능성에도 한계가 보인 시점에서 혁주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나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관계에 대한 관심의 회복인 것이다. 그것은 「韓と倭」(1977), 「陶と劍」(1980) 등 비소설계 문장으로 발표되었다. 이 경향은 나아가서 민족의 뿌리찾기에로 향하여, 1989년에는 『マヤ・インカに縄文人を追う』(마야·잉카에서 縄文人을 쫓는다)라는 기행수필 단행본을 내기도 했다. 그리고 그 한편으로 1990년 걸프전쟁 때에는 85세라는 고령을 무릅쓰고 중동지역에까지 취재여행을 강행한 일도 있다. 왕성한 의욕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놀랄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장혁주가 1990년대에 들면서 영어로 장편소설을 몇 편 썼다는 점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4편인데 그 중 적어도 2편은 실제로 집필되었다. 출판이 확실한 2편은 다음과 같다.

① Rajagriha - A tale of Gautama-Buddha, ② Forlorn Journey (or KikiSitan)

이들 장편은 1991년에 인도(!)의 뉴우델리에 있는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그리고 계획된 다른 2편이란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다.

③ Ancient People of Americans and Asians, ④ Which God is Real?

(이상은 1991.1.17.자 필자 앞에 온 서신에 의함)

혁주는 이에 관련해서 “이번에 출판된 2권만 있으면 이제까지의 모든 작품이 사라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그러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1992.4.4.자 서신) 그런데 그는 자신의 긴 작가생활을 돌이켜 스스로 3시기로 나누어, 각각 제1기: 張赫宙, 제2기:野口赫宙, 제3기: カク・チュウ・ノグチ(Kaku Chu Noguchi)로 파악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2개 국어로 쓴 작가는 있어도 3개국어로 쓴 작가는 본인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 일도 있다. 영어 작품은 그 제목에서도 헤아릴 수 있듯이, 민족의 역사적 뿌리라든가 세계적인 시각에서 본 종교의 위치 등, 보다 보편적인 것에 혁주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왜 하필이면 영어소설인 것일까. 그는 원래 한일 양국어로 써 왔다. 생각컨대, 버린 언어=한국어와 말썽이 많은 언어=일본어 대신에 아직도 때문지 않는 상태로 그의 눈앞에 있던 언어=영어로 씀으

로써, 귀찮은 민족의 굴레를 벗어나, 세계적 작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그러나 이러한 혁주의 창작행위는 실제독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 부단한 자기인식이나 자기확인이라는 색채가 짙은 것이다. 외부세계로부터의 폐쇄성이라든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방어자세와 공격성 같은 것은 그가 식민지시대의 삶을 통해서 지니게 된 슬픈 습성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혁주는 결국 이러한 ‘완고한 문학’을 평생 밀고 나간 작가가 아닌가 싶다.

필자는 1986년 2월28일에 埼玉縣日高町(그 당시는 읍이었음)에 있는 작가의 검소한 자택을 꼭 한번 방문한 일이 있다. 그 후 편지왕래는 몇 번 있었으나, 재방문할 기회는 결국 주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창작에 몰두하고 있어 시간이 없다는 것이 늘 그 이유였지만,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는 행위를 극도로 경계했다는 것이 그 참된 이유였을 것이다. 그 후 전화로 작가가 심장마비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부인한테 전해들은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은 끊겼다. 그 후, 작가가 1998년 2월에 서거했다는 소식을 뒤늦게야 전해들었는데, 98년 5월에 전화해 봤더니, 자택도 이사해 버린 후였다.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면서도 미묘한 언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줄타기 인생을 살게 된 장혁주의 만년은 고적하게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韓國語主要作品梗概

[中 · 短篇小說]

## a. 「戀風」

나(이해중)는 휴양차 直持寺에 갔는데, 우연히 옛 애인이었던 수연과 만난다. 그녀는 5년전에 같은 聖歌隊에서 활동했고 내가 求婚까지 한 사이였다. 그러나 양친의 반대로 과담이 된 다음에 나는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다. 그 후 그녀가 墮落했다는 소문을 들어 궁금하던 차였다. 이 날밤 내 숙소에 찾아온 그녀는 도저히 淪落女로는 안 보이는 순진한 눈이었다. 求婚했을 때 좀더 내가 결단했었으면 나는 自責感도 있어 나는 열심히 설복했지만 허사였다. 내방에서 자고, 내가 깨었을 때에는 그녀가 출발하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 b. 「契約」

올해(1935년?) 나는 집을 짓기로 하여 그(노인)의 땅을 일단 계약했는데, 더 좋은 땅이 있어 먼저 땅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달려가보니 이미 목수가 거기에 심어진 가지를 뽑아버린 후였다. 나는 사과하고 변상할 생각이었으나, 노인은 엉뚱하게도 40원을 요구했다. 그는 단 한푼도 깎으려 하지 않았다. 보름이 지나, 그는 불지르겠다는 소리까지 하게 되었다. 이제 울화가 터진 나는 裁判도 불사할 각오로 한푼도 안 내려고 마음먹었다. 그랬더니 노인이 찾아와 15원만 주고 영수증은 40원 냈다는 것으로 해달라 했다. 그래 주었더니 그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같은 수법으로 딴 사람에게서 돈을 등치려 들었다.



## c. 「谷問의 情熱」

이 작품은 대중잡지 《四海公論》지에 연재된 중편소설이다. 경개부터 소개한다. 주인공은 'XX운동'을 한 일이 있는 都廳직원인 나(김동우:22세)와 그가 기숙한 집의 딸 귀매(18세) 등 두 명이다.

경북 金泉에 가까운 산촌에 휴양차 들어간 나는 대추골의 사립 학습강습소 교사가 되어 하숙하게 되었다. 이 집의 아름다운 처녀 귀매를 몰래 사랑하게 되었는데 만날 기회가 없는 사이에 그녀는 약혼하게 된다. 겨우 만난 귀매는 나에게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이미 약혼한 몸이니 식을 올린 후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결심을 말했다. 둘은 드디어 관계를 가지는데 남이 아는 바가 되어 나는 강습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고향(대구?)에 돌아온 나는 평범한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귀매가 앞날을 비관하여 강에 투신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모두 내가 경솔한 탓이고, 평생 이 죄를 갚아야 할 것이라 다짐한다.

## [長篇小說]

① 『무지개』: 李南喆은 경주청년동맹에서 활동한 바 있는 대구의 보통학교 교사이다. 이 남철에게 접근하는 두 여성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남철이 사랑하는 제자 尹惠英이고, 그녀는 正義感이 강하다. 또 한 사람은 남철을 짝사랑하는 金香華로, 붙어다녀 남철을 괴롭힌다. 남철은 혜영을 '운동'을 위해 上海로 보내는데 도중에서 발각이 되고 만다. 남철은 수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 고향인 경북, 良浦에 내려가 이곳에서 夜學을 시작하려다 그 고장의 급진파 청년들의 오해를 받아 습격당한다. 自己嫌惡에 빠진 남철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 속아서 東京에 팔아먹힌 제 딸을 구출해주기를 부탁한다. 그는 결국 구출에 실패하고, 모든 幻想을 버리고 정다운 한국땅에 돌아온다.

② 『三曲線』: 대구에 사는 남녀 3쌍의 관계는 복잡하다. 가게 주인 李相守는 아내가 있으면서 여학교 교사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姜貞姬를 짝사랑하고

있다. 그 貞姬에게는 난봉꾼이지만 인심좋은 부자 金鍾澤도 마음이 있다. 그런데 貞姬는 전부터 동경유학생인 尹昌鎭과 친했다. 그 昌鎭을 鍾澤의 여동생 仙姬가 憧憬하고 있다. 그러나 昌鎭은 고향인 慶南水災를 계기로 貞姬와 헤어져, 고향에서 救護활동을 위시해서 농촌계몽에 나서, 그곳의 徐英珠라는 순진한 여성과 장래를 약속하게 된다. 하지만 돈을 마련하려고, 돌아온 대구에서 昌鎭은마음이 변해, 仙姬와 결혼하고 만다. 한편 貞姬는 자포자기한 나머지 相守와 관계를 가지지만, 전망도 없고 해서 결국 헤어진다. 英珠는 고향에서 夜學교사에 청춘을 건다.

③ 『黎明期』[農村篇] : 慶北의 山村 삼마동에서는 대지주인 양반 金宗漢, 申汝元 面長일파와 이웃面 甘村의 대지주인 양반 趙薰, 술집주인 姜太亭 일파 등 두 세력이 다투고 있었다. 이 고장에 新道건설계획이 생기자, 급진파 청년 지도자 尹雷雨는 이것이 개발로 이익을 올리려는 道評議員 松本の 계약임을 알아차려, 宗漢의 次男 仁喆에게 내막을 폭로한다. 한편 申面長의 딸 安羅는 宗漢 長男과의 결혼을 강요받자, 고민끝에 가출하고 만다. 1년 후 삼마동의 다른 술집의 딸 蔡玉禮도 趙薰의 쫓겨기를 거절하여 사랑하는 仁喆과 야간도주한다.

④ 『黎明期』[都邑篇] : 安羅는 그 후 유치원 保母가 된다. 선배 保母인 金二順의 남편 崔山이 安羅를 노려, 그녀의 방에까지 침입하지만 안라는 그를 가까스로 물리친다. 한편 玉禮는 열차 안에서 마주친 여인의 감언에 넘어가 술집으로 가게 된다. 그녀는 거기서 仁喆을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되어 초조한 가운데 崔山 손에 遊廓에 팔린다. 仁喆은 우연히 안라와 만나게 되어, 같이 옥례를 찾아다닌다. 그런데 옥례는 겨우 遊廓을 빠져나가는데 성공, 신문기자가 그녀를 부른다. (이하 중단됨.)

⑤ 『女人肖像』

평양의 母子가정에 자란 金貞玉은 16세 때 자신을 기생으로 만드려던 모친

에 반발하여 出奔, 겨우 서울의 여학교에 입학했다. 4년이 지나 졸업을 해도 그녀에게는 展望이 없었다. 그녀에게 은혜를 베푼 학감의 소개로 李侯爵의 아들 基化와 결혼하지만 그에게는 本妻가 있었다. 분개한 貞玉은 아기를 데리고 충청도 시골에 도피하지만, 결국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3년을 견디어낸 그녀는 이번에는 혼자 아주 가출하여 東京의 洋裁학원에 입학했다. 1년이 지난 무렵 基化의 '秘書'가 그녀를 찾아내 한국에 데리고 가는데 도중에서 도주해, 다시 東京에서 洋裁수업을 계속했다. 1년 후에 양재사가 되어 정옥이 귀국했을 때 基化는 병이 위독해, 예전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죽는다. 정옥은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굳게 다짐한다.

《日本文要約》

## 張赫宙の生涯と文學

白川 豊

張赫宙（本名：恩重＝1905－98）は大邱に生まれ、地元的高等普通學校卒業後、教師生活の傍ら、日本語習作を始め、1932年に短篇「餓鬼道」が『改造』誌の懸賞に入選作となり、日本文壇に登壇した作家である。彼は朝鮮語作品も10數篇残しているが、それに數倍する日本語作品を發表した。その作品傾向は多岐にわたるが、概ね、プロレタリア文學の同伴者文學的作品で出發した後、すぐ自己の体験や伝聞をもとにした朝鮮の風俗物に作風を轉じ、その後、純粹フィクションも書いたが、自伝的要素の多い作品も數多く残した。ここには張の自己の生い立ちに關わる強い執着が見て取れる。1940年代前半の太平洋戰爭期には、日本の國策に迎合的な作品も書いたが、量的には案外、多く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彼が「親日文學者」という汚名を背負ってきたのは、むしろ作品外の言動にその主な原因がある。張赫宙は批判されると感情的に反応して頑なになるという、自己防衛意識の非常に強い作家で、このことが彼の後半生をその業績の割には悲劇的なものとしたのである。〈親日派〉指彈の中、戦後も彼の創作活動は日本で旺盛に續けられた。その最大の結實が長編「嗚呼朝鮮」（1952年）である。彼はこの作品で捨てたはずの祖國の慘狀に慟哭するのである。しかし一方で、この作品には選擇不可能な大状況の中で個人はあくまで無力であるという自己弁明の論理が隠されていることも事實であろう。この姿勢は實は1945年以前の作品の中にも共通して見え隠れしているのであるが、そのような張の意図と心情が理解できる日本の讀者は少なかったはずである。多くの讀者はその都度手輕な讀み物として彼の作品を消費していった。それゆえ、多彩な新人作家が登場した戦後の日本文壇において張赫宙の影響力は急速に失われていった。彼は最晩年までノンフィクション、英文小説にまで手を廣げて執筆活動を續けたが、ついには祖國でも日本でもほとんど忘れられた作家として寂しい死を迎えたのである。兩國の狭間で綱渡り人生を強いられた張赫宙ではあるが、その文學の質と量を思う時、決して忘却の作家たらしめるべきではないと考える。この作家に對する総合的な再評價が待たれるところである。（了）